

태고총림 선암사 복지봉사 시작

태고총림 순천 선암사(주지 경담)는 봉사단을 결성하고 지역민들을 위한 복지봉사에 나선다.

10월 10일 선암사 대웅전에서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총무원장 인공 스님, 경담 스님과 봉사단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선암사복지봉사단' 결성식을 개최했다. 봉사단은 결성식을 통해 지역 복지센터와 손을 잡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이날 행사에는 순천지역 독거노인과의 결연식과 봉사단 발대식이 같이 진행됐다. 선암사 봉사단은 지난 7월 첫 기획회의를 통해 3개월 간의 준비위 구성, 정관 및 세칙, 집행부 구성 등 창단준비를 통해 이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경담 스님은 인사말에서 "이웃들에게 자비와 보시를 실천하고자 모인 선암사복지봉사단 창단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개산 1332주년 기념 개산문예대제전 범어사

부산 범어사주지 정여가 개산 1332주년을 맞아 '부처님 마음으로 하나되는 세상'을 주제로 10월 9-10일 개산문예대제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사 개산문예대제전에서는 '범어사' 대각사상연구원 학술대회를 열고 백용성 스님의 민족정신을 재조명했다. 특히 범어사는 개산문예대제전을 부산광역시와 함께 아동·청소년 문화사업으로 진행해 의미를 더했다. 사경, 전통문화체험, 불교 사진 전시, 자비의 쌀 나누기 등을 진행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우리음악·문화 한번보세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근로자들의 ‘우리음악 페스티벌’

이주여성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각 나라의 전통 음악과 광주 시민에게 알리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대표 이주성)와 해뜨는다문화가정복지센터(센터장 정선, 대광사 주지)는 10월 9-10일 광주 동구 충장로에서 '우리음악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100여 명의 네팔,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이주가족과 외국인 근로자와 300여 광주시민들이 함께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각 나라의 전통음악과 전통춤을 선보였다.

행사는 아난다 씨와 비발라 씨의 네팔 전통춤, 베트남 근로자인 태흥 씨가 가수 안재욱의 '친구'를 열창해 시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또 태국 옹과 가족들의 전통춤과 캄보디아인 멘타 씨와 속하이 씨가 캄보디아 노래를 선보였다. 행사는 광주시민과 외국인근로자, 다문화



이주여성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우리 음악페스티벌이 10월 9-10일 광주 충장로에서 개최됐다.

가족들이 강강술래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행사를 진행한 이주성 대표는 "외국인들 간의 교류와 광주시민들의

따뜻한 정과 삶에 희망을 주고 싶었다"며 "힘든 일터에서 벗어나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에서 어우러진 공동체의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일해 고국에 돌아갔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홍법사 아미타대불 점안 법요식



부산 홍법사는 10월 10일 아미타대불 점안 법요식을 봉행했다. 아미타대불의 높이는 21m에 이른다.

부산 홍법사주지 심사가 개산 7주년을 기념해 홍법사 대웅보전 아미타대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아미타대불은 불자들의 염원과 기도를 원력으로 조성된 것으로 2009년 5월에 착공해 10월 10일 점안됐다. 아미타대불은 18개월 동안 주조명장 청담 송창일 거사에 의해 제작됐다. 대불은 높이 21m로 불두 높이 5m, 귀 높이 3m, 손 높이 5m, 좌대 높이 3m

에 이른다.

점안대법회는 前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정여 스님, 대만 불광산사 주지 심정 스님, 허남식 부산광역시 시장, 설동근 부산불교연합회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다. 점안 대법회에 이어 만일염불기도 입재식이 함께 진행됐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아픈 역사 돌아보는 교육의 장

군산 동국사 창건 100주년 기념 사진 촬영대회

경술국치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군산 동국사(주지 종명)가 100주년을 맞았다. 동국사는 10월 9일 100주년 기념 사진촬영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사진 촬영대회는 약 100여 명의 아마추어 사진작가들이 동참해 열기를 더했다. 일본양식의 동국사는 외세의 침략이 없기를 기원하며 치욕의 역사를 기억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동국사 총무 종결 스님은 "동국사는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일본에 동화시키고, 왜색불교를 한국에 전파해 불교가 식민통치수단으로 쓰였던 역사적 교훈을 간직한 사찰이다"고 소개했다. 스님은 행사에 대해 "아픈 역사를 간직한 동국사의 모습을 통해 민족의 애환을 배우고 조국의 발전된 모습과



9일 열린 동국사 사진촬영대회에 동자승과 동국사 신도들이 모델로 나섰다. 모델이 일본유카타 복장을 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어린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사진 촬영대회의 입상작은 26일 동국사 창건 기념 법회에서 시상한다. 사진전에는 과거 일제시대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전시된다. 수상작에는 각각 30만원, 20만원 등 2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아시아 불교국가 지원 및 교류

부산불교 및 재가불자단체가 국제 교류를 통한 위상 강화에 나섰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여)와 부산불교연합회신도회(회장 설동근)는 10월 10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제1회 아시아 불교국가 지원 및 교류'의 류 전달식을 진행했다. 첫 지원국가인 몽골에는 의류 의 1만 여점의 물품이 전달됐다. 지원 물품은 은산해운항공사의 도움으로 10월 25일 몽골의 우부르항가이에 도착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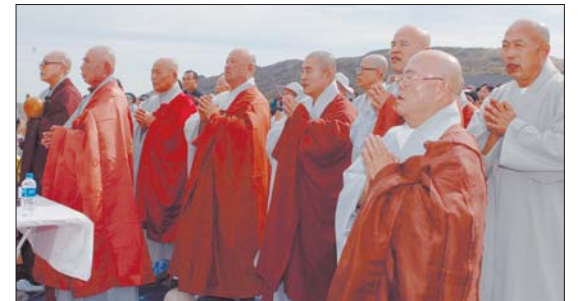
두 단체는 지난 4월 아시아 불교 국가 헌옷 및 의류 지원 사업을 함께 주최하기로 결의했다. 물품은 부산불교연합회신도회 사무실, 수영구 노인복지관, 보리수마을 백광, 양정 청소년 수련관에서 협조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무등산 장불재 산신제 광주동구불교협의회

광주지역 스님들이 광주시민과 무등산을 찾은 모든 이들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산신제를 봉행했다.

광주동구불교협의회(회장 혜명)는 무등산관리사무소(소장 박인중)와 공동으로 10월 11일 무등산 장불재에서 '제2회 무등산 산신제'를 봉행했다.

행사는 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성오 스님, 태고종 원로의원 지암



스님, 원효사 주지 현지 스님, 동원사 주지 지각 스님, 수덕사 주지 혜명 스님, 지형원 광주전남신도회장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여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삼광사 사찰음식 문화 한마당

부산 삼광사주지 류화산)는 10월 8일 '몸과 마음을 살리는 자연의 선물'을 주제로 제2회 천태종 사찰음식 문화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를 통해 삼광사는 불교의 정신문화를 알리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거듭났다.

행사는 조각 전시전 '물에 세긴 명상' 사진 특별전 '빛으로 그린 마음' 공연 '사찰음식에 흥을 불어넣는다'



등 문화 한마당과 함께 사찰음식 체험 및 시식, 차공양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현대불교 창간 16주년」을 축하합니다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6기 佛敎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선생)

기본과정 (37개월)	사물(목탁, 오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석, 쇠송, 상단에불, 각단에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7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옥, 신중작법, 지장창, 관음시식, 다비시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반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0년 11월 10일까지

◆개강일시 : 2010년 11월 11일 매주(금) 오후 5시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중교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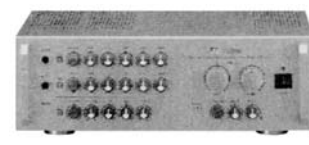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02)741-0495, 0496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海月 金文華의 魂이 담긴 스피커의, 힘 있고 우렁찬 소리는 스님의 건강과 절 전체에 氣를 불어넣어 줍니다.

(27년간 전국 870여 사찰에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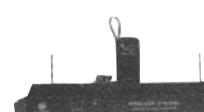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스테레오 앰프 300AN
2Channel Stereo Mixing Amplifier Digital Echo

- ◆소리공양 종목◆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高音質 무선마이크



◆가격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DX-707 스탠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법당전용 스피커

◆일반 마이크 V-606LC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음역력, 음질 보장
-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DX-707 스탠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고성능 탁상 마이크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유코음향연구소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중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